



## 닭고기 피부병과는 무관

— 피부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전복의대  
피부과교실 임철완교수 밝혀 —

피부병에 닭고기를 먹는것은 나쁘다는 속설이 임상실험을 통해 근거없음이 밝혀졌다.

지난 10월 13일,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바 있는 대한피부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전복대 의대 피부과교실의 임철완교수팀은 「닭고기섭취가 습진성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해 닭고기섭취와 피부병치르는 무관함을 밝혔다.

발표에서 임교수팀은 닭고기에 대한 금기속설을 밝히기 위해 7명에게 인공적으로 피부염을 일으키고 이들 가운데 5명에게 매일 1.4kg 짜리 닭 한마리씩 10일간 삶아 먹이며 치료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닭고기를 먹이지 않고 치료 하였는데 이 임상실험결과 닭고기를 섭취한 사람과 섭취하지 않은 사람사이에 피부염치료의 차이점이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美농업부문 실질소득 사상최저

미농무성 추계에 의하면 83년도 농가수취가격지수가 사상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가격 기준 농업소득은 71년 이래 최저인 150~170억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업부문 실질소득은 1910년 농업소득 추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54억달러에 그쳤는데, 이는 대공황기(1930년대초)의 69억달러보다 15억달러가 줄어든 것이며, 73년의 260달러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83년도의 농업소득이 사상최저수준인데 반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농업생산비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같은 현상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은 농업생산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다. 즉 1983년도에 미국 전체 농가가 지불한 이자총액이 약 140억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농업지출(경영비)의 총액의 10.6%나 된다.

한편 1983년도에 미국정부가 시행한 감산정책의 일환으로 PIK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의 달에 열린 도서축제

— 월간양계도 출품해 좋은 평 받아 —

문화의 달 10월을 보내면서 대규모 도서축제가 연이어 펼쳐졌다. KBS 주최 「84 전국도서시장」이 15일부터 24일까지 여의도 '만남의 광장'에서 열렸고, 25일부터 31일까지는 「제27회 전국도서전시회」가 대한출판문화협회와 MBC 공동주최로 현대인력관리본부운동장(전 서울고 자리)에서 벌어졌다.

KBS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한 「84 전국도서전시장」에는 80여 출판사가 참가하여 6천여종 16만권의 도서를 전시·판매했으며, 재고도서, 옛그림, 개화기 이전의 생활필수품이 판매되었다. 특히 잡지판에는 각종 잡지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한 외에 「북한도서코너」를 마련, 노동신문, 국민학교 교과서, 잡지 등 70여종의 북한도서를 전시하여 관람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편 '책' 가까이하는 사회를 위하여'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벌어진 「전국도서전시회」는 실내에서의 평면적인 전시방법을 바꾸어 입체적 공간전시 형태로 꾸며졌는데 2백여 출판사(社別전시 80개사, 종합전시 129개사) 3만여종의 책 30만권이 선을 보였다.

전시회 기간중 독서백일장, VTR영화상영, 인형극 공연, 독서강좌, 경찰국악대 연주, 사물놀이, 봉산탈춤공연 등 각종 행사가 연일 벌어져 흥겨운 잔치분위기를 돋구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본지 월간양제도 사내보 코너에 출품하여 좋은 평을 받은 바 있다.

### 가금 인플루엔자 근절 안돼

#### — 펜실바니아 산란계 농장서 항체 발견 —

미농무성은 펜실바니아주 랭카스터 카운티에 있는 한 산란계농장의 9,362수 중에서 전염성가금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의 항체가 발견되어 지난 8월 31일 모두 폐기처분 하였다고 발표했다.

펜실바니아 대책기구(AI Task Force)가 수행중인 AI감시계획에 의해서 항체가 발견되었으며, 발견된 농장은 혈청학적 양성(sero-positive)으로 판정되어 보유중인 모든 가금이 폐기처분 된다고 한다. AI감시계획은 계란검사, 양계장검사 및 농장내에서 폐사한 모든 가금의 검사를 포함하고, Pennsylvania州에 선포된 검역지역이 해제된 후에도 최소 6개월간 지속

적으로 수행한다.

현재까지 펜실바니아주에서 혈청학적 양성으로 판정되어 폐기처분된 것만 해도 48개 농장에 총198만수에 달한다. 최근에 폐기처분된 농장들은 환경청소 및 소독을 실시후 한 30일간 휴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펜실바니아주의 4,000평방마일이 검역지역으로 선포되어 있다.

한편 버지니아주는 AI나 AI항체의 발견사실이 없기 때문에 2,744평방마일의 검역지역을 해제하였다. AI퇴치를 위한 감시계획은 해제후에도 6개월간 지속된다.

버지니아주에서 지난해 10월이후 미농무성의 AI근절조치에 의해 폐기처분된 닭은 65개 농장의 125만수로서 이 중에는 브로일러 215,000수와 종계 141,000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 총액은 580만불이었다.

### 중공 수출의사에 세계곡물시장 긴장

#### — 최근 곡물 생산량 급증 —

9월에 중공을 방문한 日·中共 식용유통개발 위원회의 일본측 대표와 회담한 田紀雲 중공부수상은 "중공은 일본과 농산물의 장기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앞서 7월에는 田副수상이 "중공은 서서히 곡물, 면화, 식용유 등의 수입국으로부터 수출국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 말을 신화사통신이 보도하였다.

이러한 중공측의 발언은 「대단히 당돌하게 나온것」으로서 일본 농림수산성과 商社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중공은 현재 곡물수입국으로 1983년의 전체 곡물 수입실적은 1,353만톤에 달한다. 그중 소맥이 태반으로서 미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프랑스 등과 장기수입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수출은 쌀과 대두가 대종이며, 1983년의 수출량은 93만톤에 불과하다. 일본에 대해서도 대두, 소두 등을 수출하고 있으나 일본의 농

산물 총수입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5.3%의 낮은 수준이다. 요즘에 와서 중공의 식량 생산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곡물에 대두와 감자류를 포함한 중공의 식량생산은 1976년에는 2억 8,600만톤 이었는데 1981년에는 3억 2천만톤으로 늘었고, 1981년도에는 3억 5천만톤, 1983년에는 3억 8,700만톤까지 증가하고 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약 4억톤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본상사에 의하면 금년에 중공은 흉작을 맞은 소련에 약 45만톤의 옥수수를 수출하고 있으며 소맥도 중공에서 소련으로 수출되고 있지 않나 하는 추측도 있다.

(농업경제정보)

### 美일리노이주 식품 및 농산물 카탈로그전

— 10월 18·19일 롯데호텔 피코크룸 —

「미국 일리노이주 식품 및 농산물 카탈로그전」이 일리노이주 농무성과 미대사관 농업무역관 주관으로 지난 10월 18·19일 양일간 롯데호텔 피코크룸에서 열렸다.

식품과 농산물의 질향상을 위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각종 가공식품, 식품가공기계, 동물사료, 농업경영기술, 가축·가금류 사육장비, 곡물보관장비 등에 관한 카탈로그가 전시되었다.

### 세계무역박람회 개최

— 미 시애틀, 타고마에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

북서태평양 세계무역협회와 워싱턴, 오레곤, 아이다호, 몬타나, 와이오밍, 알래스카주 공동주최로 제 2회 세계무역박람회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워싱턴주 시애틀 - 타고마에서 열렸다.

40여개국 2천여명의 바이어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는 작곡 500여사로부터 농업 및 농산물, 산업기술, 각종 상품 등이 출품, 전시되었으며 대회기간중 3만이상의 관람객들이 다녀갔다.

### 농산물 가공식품 전시회

— 농협 농가공산물 판매센터,

10월 16일~23일 —



부존 식량자원을 활용한 제 2회 농산물 가공식품전시회가 식생활개선범국민운동본부(회장 김보현)주최 농수산부 후원으로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농협 농가공산물 판매센터(뉴코아 별관 2층)에서 열렸다.

보리, 감자, 닭고기, 돼지고기, 수산물 등 국내 부존 식량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가공식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는 31개업체가 참여, 모두 1백 20여종 2백44개 품목이 선을 보였는데, 각 업체마다 시식코너를 마련하여 관람자의 눈길을 끌었으며, 시중가격보다 10~20% 정도 싼값으로 판매되었다.

전시된 품목으로는 보리후레이크, 보리국수 등 보리제품, 감자고로케, 감자빵 등 감자제품, 닭고기, 햄, 소세지 등 육류제품, 피조개, 미역 등 수산제품, 과일통조림, 채소제품 등이다. 또 소재별로 요리를 다양하게 하여 전시했는데 닭

고기, 계란요리로 닭인삼가루 튀김, 닭고기 셀러드, 닭날개 구이, 계란파전, 계란 장조림 등이 전시되었다.

한편 식생활개선운동본부에서는 관람자들에게 동본부에서 발행한 「조리안내」, 「바른식생활」, 「월간식생활」 창간호 등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 아시아·태평양지역 농산물유통개선 협의회

### — 동남아 11개국 및 FAO대표 참가 —

개발도상국가의 농산물유통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농산물유통개선 협의회가 동남아 FAO(국제식량농업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0월 30일 상오 9시 농협회관에서 열렸다.

농협과 FAO가 공동주최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유통개선협의회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동안 각국대표의 농산물유통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30일 협의회에서 박종문농수산부장관은 치사를 통하여 「한국은 농산물유통개선의 선결과제인 교통과 통신 등 기간시설 정비가 잘 이루어져야 앞으로 정부, 농민, 소비자, 상인 등이 합심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근환농협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농산물유통문제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 대부분의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는 매우 복잡다기한 문제이므로 국민경제 각분야의 조화된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특히 안성 및 전주농협지도자교육원의 농민교육방법이 크게 주목을 끌었는데, FAO는 이를 공식훈련방법으로 채택, 각 회원국에 적극 보급키로 했다.

## '84 최대계란 콘테스트

### — 미국 메인주 양계연합회 주최 —

미국 Maine 주 양계연합회에서 주최한 “세계 최대계란 콘테스트”의 금년도 우승자는 디트로이트에서 20,000수 규모의 계약생산을 하는 존 리차드슨씨로서 135cc의 水分과 같은 용적의 야구공 또는 테니스 공만한 계란을 출품했다고 한다.

또 134cc의 水分용적인 계란을 출품한 루이스 사전트씨는 아깝게도 2위에 머물렀으며 3위는 유겐 키스트씨로서 131cc 水分용적이었다고 한다.

한편 현재까지의 콘테스트 最大記錄은 1979년도 우승자 George R, Rauch Jr. 씨가 出品한 계란으로서 265cc 水分용적으로서 올해 우승계란보다 2배의 용적을 가진 것이었다.

## 전세계 곡물생산

### 작년보다 7.3%증가 예상

미농무성은 9월 1일 현재 세계 및 미국의 올해 농산물생산 예측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세계 곡물생산은 15억 9천260만톤으로서 작년보다 7.3%가 증가하였으며, 최대 생산국인 미국은 작년보다 옥수수가 81%, 대두가 29%, 전소맥이 6%씩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선진축산 SPF 양돈세미나 성료

### — 10월 25일 전경련 국제회의실에서 —

선진축산(주)(대표 이인혁) 주최 S.P.F. 양돈 세미나가 지난 10월 25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설동섭 가축위생연구소장, 전동용 대한양돈협회장을 비롯하여 전국양돈가 및 업계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양돈협회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내 양돈업계에 S.P.F(특정질병부재) 양

돈방식을 알리고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박근식 가축위생연구소 과장은 연구소에서 실험한 S. P. F. 돼지의 사육성적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S. P. F. 양돈의 보급을 위해서는 S. P. F. 돼지의 인정기관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花岡秀昌 양돈부장(日本 住商飼料(株))은 S. P. F. 돼지의 방역비가 일반돼지 방역비의 1/3밖에 되지 않으므로 양돈 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는 S. P. F. 양돈 경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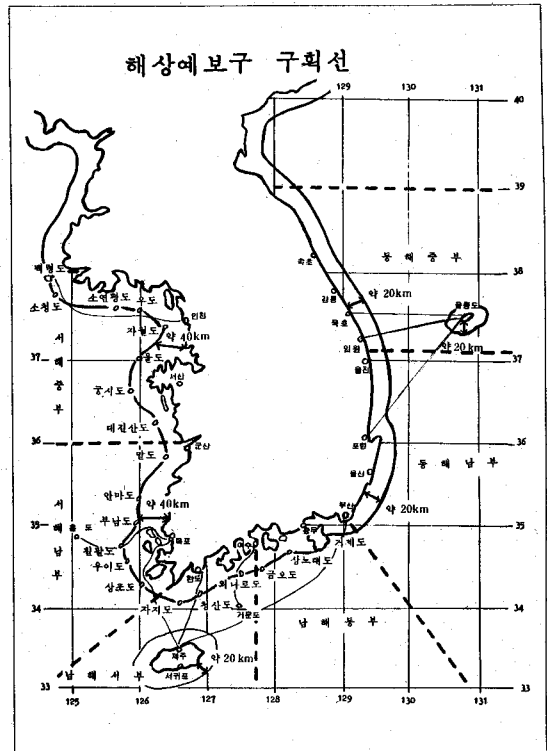
- SPF 돼지의 의의와 필요성  
박응부(서울대교수)
- SPF 돼지의 작출기법 확립과 품질보증  
박근식(가축위생연구소장)
- SPF 양돈경영의 이점  
花岡秀昌(일본 住商飼料畜産 부장)
- 선진축산의 SPF 종돈사업 소개  
윤희진(선진축산 상무)
- 미국의 SPF 프로그램  
T.D. Tanksly(미국 Texas A&M대학교수)

### 일기예보 방법 일부 변경

11월 1일부터 일기예보 방법이 일부 변경되었다. 해상 예보를 앞바다와 먼바다로 구분하여 (20km~40km) 예보하고 인천-백령도, 목포-

홍도, 목포-제주, 완도-제주, 여수-거문도, 부산-제주, 포항-울릉도, 임원-울릉도, 묵호-울릉도 등 9개 항로에 대한 항로 기상 예보도 실시한다.

월간양계는 매일 매일의 전국 주요도시 기상 상황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 낙농에도 전산시스템 등장

첨단통신정보 시대를 맞고 있는 요즘 낙농 경영에도 고도의 정보시스템(INS)이 등장하게 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北海道가 지역 INS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낙농경영정보 시스템 파일러트 사업이 85년 3월 착공될 예정인데, 이 시스템은 각 낙농가의 사료, 토양, 젖소 비유량 등을 컴퓨터로 분석하고, 각종 사료의 가격, 효능 등

## ● 축산업계소식

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이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낙농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낙농산업을 안정화시키는데 큰 몫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낙농가 3천호가 속해있는 十勝농협 연합회가 도입하는 낙농경영정보 시스템은 민간컴퓨터 및 통신기기 메이커 3개사와 일본전신전화공사가 경쟁입찰한 결과 이중 富士通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해 약 7천만엔에 수주했는데, 금년말까지 출하를 마치고 이후 테스트를 실시, 내년 3월에 시동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본부에 메인컴퓨터와 단말기 16대가 설치되고, 낙농가를 포함한 각 분석장소에 단말기 1대씩이 설치된다. 또 낙농가의 사료, 토양성분, 영양분, 젖소 마리당 비유량, 지방율을 매일 조사하는 외에도 전화회선을 통해 새 품종개발 동향 등 각종 정보 자료도 전송하게 된다.

### 전국 축산인테니스대회 개최

제15회 전국 축산인 테니스대회가 전국 축산인테니스회 주최로 관계인사, 선수 등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1일 안양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축산인들의 친목도모와 유대 강화를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축협중앙회와 가축위생연구소, 화이자(주)에서 후원했는데, 봉황배, 금배, 은배로 나누어 실력을 겨루었다.

#### 〈봉황배〉

- 우 승 : 이내혁 · 변호철(축협)
- 준우승 : 강승기 · 조달환(서울우유)

#### 〈금 배〉

- 우 승 : 김승철 · 최낙신(축협)
- 준우승 : 윤화중 · 이호일(전대)
- 3위 : 강신규 · 이경숙(서울우유A)  
문용구 · 박현기( " B)

#### 〈은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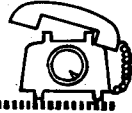
- 우 승 : 서준은 · 조기행(홍성축산)
- 준우승 : 장재익 · 정현배(연암축산)
- 3위 : 강국환 · 유병돈(제일화학)  
백영규 · 이병구(공주축협)

봉황배 미기상 : 이동화 · 오재정(홍성축산)

" 감투상 : 한태우 · 김동성(가축위)

은 배 감투상 : 이황우(가축위) · 유일웅(대한제당)

## 업계단신



○ 제일양계기구제작소(대표 박호일) : 국내의 채란양계가를 위해 일본고신제기(鬼神製機)와의 기술제휴에 의한 효율적인 양계기구의 보급을 위하여 11월 13, 14양일간에 걸쳐 자동급이기, 계분처리로다, 자동집란기 등 현대화를 위한 양계기구 전시설명회를 고신제기의 기술진에 의해 갖기로 했다.

또한 동사는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에 지속적인 케이지의 수출과 아울러 자동화 기구를 수출할 것을 상담 추진중이다.

전 시 장 소 :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당정리 615-1 제일양계기구제작소 내.

전시설명회일정 : 1984년 11월 13일, 14일.

전 화 : 안양(0343) 52-1316/0247

○ 홍성사료(대표 정태원) : 동사는 품질관리 향상과 판촉강화를 위해 9월 24일자로 생산부와 영업부 판촉지도과에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하였다.

서동욱(생산부, 영남대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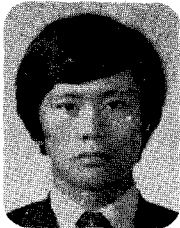
맹화연(판촉지도과, 고려대졸)

○ 동남하우스산업(주) (대표 윤용구) : 본격적인 완전건축(축사)사업을 위해 법인체로 전환한 바 있는 동사는 건축기술부장에 유홍상(건축업)씨를, 토목기사에 한인대(건대 공대졸)씨를, 전기기사에 김창환씨(전 한국전력근무)를 기용하였다.

한편 동사는 건설부고시 표준축사, 축산농가 지역실정에 맞는 완전축사, 부대시설(창고 및 주택) 등을 시공하고 있다.

○ 신촌사료(주) (대표 김용태) : 업무능률향상과 효율적인 양축가 서비스를 위해 업무부와 영업부에 다음과 같이 신입사원 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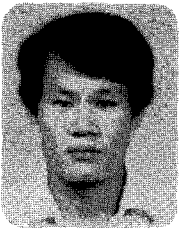
김광수(충남대 축산과졸, 업무부 생산과근무)  
정지만(영업부 홍성출장소 근무)  
이생근(서울대 수의대졸, 영업부 근무예정)  
김규중(건국대 축대졸, 영업부 근무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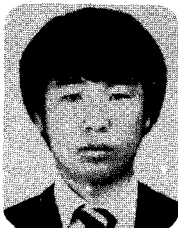
(김 광수씨)



(정 지만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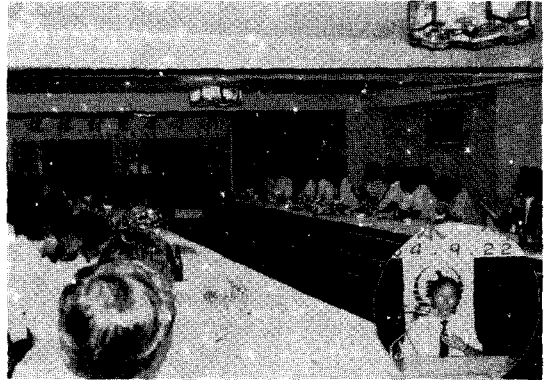


(이 생근씨)



(김 규중씨)

○ 동방유량(주) 해표사료 체육대회 성료 : 동사(대표 신명수)는 지난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용인 신갈국민학교에서 동방유량 사료 판매부서 및 공장 체육대회를 지행하였다.



사료사업부팀, 공장사무실팀, 공장현장 직원팀으로 나누어 축구, 배구, 릴레이, 줄다리기 4개 종목에 걸쳐 마음껏 기량을 발휘한 결과 영예의 종합우승은 축구와 배구에서 우승한 사료 사업부팀에 돌아갔다.

이날 육순교 상무는 이번 1회 체육대회를 계기로 사료관계 임직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업계 제일의 "해표사료"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우승 : 사료사업부팀

준우승 : 공장현장직원팀

3위 : 공장 사무실팀

응원상 : 공장현장직원팀

한편 동방유량(주) 해표사료의 사료담당 홍성출장소의 전화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다.

전화) 홍성 : 2-2873

○ 협동사(대표 김기창) : 다목적 축사 제작 및 시공업체로 천안에 지사를 설치하여 충남 지역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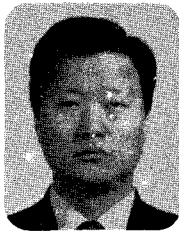
충남지사 : 충남 천안시 완성동 373-8호(천안시 단위농협옆)

전화 : 2-2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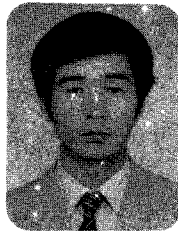
○ 월간 식생활(대표 김보현) : 식생활개선 범국민운동본부에서 발간되는 월간 식생활 12월호(통권 4호) 특집으로 닭고기를 선정, 닭고기에 대한 집중적인 기사를 취급하여 일반 소비자의 닭고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다.

○ **풍진화학<주> 장대석상무이사 승진발령**  
 명 : 영업의 활성화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3일부로 장대석(사료 담당)이사를 상무이사로 승진발령하고, 이종록 대리(대구 영업소)를 과장으로 승진시켰다.

한편 반월공장의 업무활성화를 위해 서울 직통전화 232-7572, 232-7573을 각각 신설하였다.



(장 대석 상무)



(양 기원 씨)

○ **과학사료(대표 신정재)** : 사세확장과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0월 1일부로 영업부에 양기원(연암축산 전문대졸)씨를 특채하여 대구 경북지역 주재원으로 근무토록 하였다.

○ **천호부화장(대표 이재욱)** : 사세확장과 영업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0월 1일부로 영업부에 이재열(영남대 축산과졸)씨를 특채했다.

○ **(사)축산기업조합 중앙회 제육분회(분회장 박태권)** : 식육(닭고기) 위생에 관련된 부조리와 제반 문제점의 자율적인 시정 및 개선, 식품위생 향상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분회 지구조합에서 선발된 6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 **<주>진양사료(대표 강성배)** : 사세확장과 영업활성화와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책으로 지난 10월 15일부로 영업부에 우석성차장, 박효열기사를 특채하고 경주 출장소장에 이철규대리를 발령하였다.

한편 지난 10월 20일에 본사 및 각 출장소 여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의 능률화와 고객서비스 향상에 대한 내용으로 여직원 특별 사내교육을 실시했다.

○ **<주>대보동물(대표 최종묵)** : 사세확장과 영업의 쇄신을 위하여 지난 9월 13일부로 장기운(영남대 축산과졸)씨를 특채하여 경상남북도지역 주재원으로서 가축약품 및 농장방문과 서비스를 가일층 높이도록 했다.

○ **최해용씨 신진양행 인수** : 50여년간 목장(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신은목장)을 경영해 오던 최해용씨가 지난 6월 가축약품업체인 신진양행을 인수한데 이어, 10월 1일부로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다.

본사 및 판매점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482-2  
 전 화 354-9189

지역 판매점 :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삼송리 3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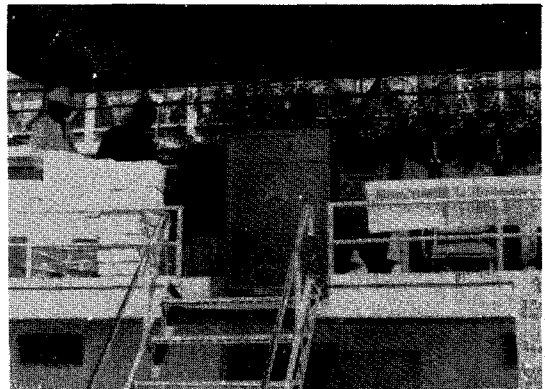
전 화 : 354-3745, 387-3770, 352-9927

(신입사원)

영업 2부 과장 전현철(건대 축산가공학과졸)

○ **선진사료<주>(대표 이원복)** : 상무이사에 남대현씨(전 대한제당 근무)를 기용하고 업무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제일사료<주> 세무대책 세미나 개최** :



△ 원내는 환영인사를 하는 민 태혁 상무



동사(대표 오관영)는 지난 9월 22일 대전관광호텔 2층 회의실에서 대리점업자 26명, 영업사원 20명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료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세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세무 대책 세미나」(강사; 세무사 이종성)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사료 판매과정에서 발생했던 많은 세무상의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주〉동방(대표이사: 이각모)**: 일본의 최신 양돈 기술 및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출발한 한국양돈연구회 시찰단에 충청 영업소장이병모씨를 합류시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케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 세미나등을 계획중에 있다.

또한, 성실한 경영과 축산인을 위한 기업이라는 신념아래 맥을 이어온 〈주〉동방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리적인 운영방식과 발전성을 인정받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

○ **롯데협우유(대표 강진우)**: 동사는 프랑크소시지 시리즈로 「점보」를 개발한데 이어 「미니프랑크」소시지를 개발, 11월부터 시판하고 있다. 시판가격은 「점보」와 같은 180g 포장에 1천 1백원.

○ **삼양사 마크 변경**: 1924년 창업 이래 지난 60년간 제당업, 화섬업계를 이끌어 온 동사(사장 김상하)는 회사마크를 새로 제정, 10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다.



(삼양사 신마크)

이 마크는 양승훈(서울대 산업미술과) 교수의 작품으로 전체모양은 뿌리깊은 거목으로서 전통과 영원한 발전을 뜻하며, 힘차게 뻗은 선은 태양의 빛으로서 미래를 향한 이상을 나타내고,

3개의 삼각형은 동사의 사훈인 양복(養福), 양기(養氣), 양재(養財)의 뜻을 담고 있다.

한편 목표사료공장에 이어 울산에 새 사료공장을 건설하는 등 사료 축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동사는 11월부터 격월간으로 「축산가이드」를 발간하고 있다.

○ **과학축산(대표 이태일)**: 동사는 지난 10월 7~8일 양일간에 걸쳐 국립공원 오대산에서 추계 전직원 야유회 및 극기훈련을 실시하였다.

‘살아있는 회사’ ‘전진하는 회사’를 표상하는 이번 야유회 및 극기훈련은 오대산에서 소금강정학동까지 중주 행군하는 일정으로, 소금강정상 노인봉에서 통일을 기원하는 산상기도와 camp fire 등 다채로운 행사를 겸하면서 전직원의 협동과 단결로 무사히 일정을 마쳤다.

기간중 일사불란한 산행질서와 자연보호 정신 및 국토에 대한 사랑과 애국심을 고취하여 타 산악인들의 모범이 되었으며, 어려운 산행 마지막까지 보여준 질서와 힘찬 기백은 청학동주민 및 수 많은 관광객과 산악인들로부터 힘찬 박수를 받았다.

○ **남양산업(대표 유홍걸)**: 내년 1월부터 아기밀 두유를 생산 시판키로 하고 준비작업중이다.

동사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필요한 기계설비를 끝낼 예정이며, 다음달(12월)부터는 시험가동에 들어가는 한편 대리점모집도 할 계획이다.

○ **롯데리아 창립 5주년**: 최근 인스턴트 식품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롯데리아(대표 한영국)은 10월 25일 창립 5주년을 임직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고성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한편 동사는 지난 1년간 점포수를 26개에서 32개로 늘리는 등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 가운데 22개 점포가 서울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 **축산과 신설**: 밀양 농장전문대학에 울해 축산과가 신설되었다.

○ 한국식품공업(주) (대표 이길수) : 본사와 영업부 사무실을 이전.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77 오류빌딩 4층 (전화 685-5081~4)

○ 제일축산, 제일농산 : 서울사무실을 강동구 삼전동 1-1 신원빌딩 301호로 이전.

(전화 415-6961~5)

○ 태능 돼지갈비 폐쇄위기 : 하루 7백여마리의 돼지를 소비해온 태능의 솔밭 돼지갈비집이 자연녹지공원 조성으로 철거케 되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돼지고기를 대온 도매업자들은 물론, 축산물 유통관계자들도 소비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솔밭갈비를 양성화하거나 인근지역에 이같은 규모의 소비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주> 대성미생물연구소 : 동사 사장에 이동규씨가 취임하였다.

○ 한국동물약품(주) (대표 김호석) : 10월 2일자로 신입사원 5명을 채용하였다.

이정수(강원대 축산과) 김영전(건국대 사료과) 윤경식(영남대 축산과) 홍의상(전주 농림고) 신승환(신홍실업 전문대)

◇ 폴리테크 캔포장 (과학축산)

동사는 후랄타돈과 13종의 비타민 및 필수 아미노산을 이상적인 비율로 배합하여 산란촉진제로서 호평을 받고 있는 「폴리테크」를 양축가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포장재의 질을 개선하고자 1kg 신규포장과 10kg 다용도 캔 포장을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다.

한편 동사는 13종의비타민과 6종의미네랄 및 필수 아미노산을 첨가한 고단위 수용성 종합영양제 「듀비타」도 용해 문제 등을 완벽하게 개선함으로써 더욱 더 양축가의 애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신 제 품 ◎

◇ 스타신 (<주> 대보동물)

가금의 복합호흡기 질병예방 치료제 스타신 (STAR CIN)을 개발하여 절찬리에 시판중이다.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과 후랄타돈의 2중 상승효과로 인한 가금의 복합호흡기 예방·치료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적정한 가격과 높은 효과로 많은 양계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질병예방을 위한 크리닝에 가장 경제적으로 애용되고 있으며, 포장은 500g 캔과 1kg 알미늄 포장으로 생산 시판하고 있다.

◇ 네오신M 수용산 <주> 동방

장내 세균 특히,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에 강력한 살균력이 있는 광범위 항생제 네오마이신에 장의 과도분비나, 과도운동상태를 치유하는 메스코폴라민 브로마이드를 보강하여, 더욱 탁월한 설사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네오신 M 수용산을 개발하였으며, 또한 링크마이신이 더욱 강력히 처방되고 이에 설파메타진이 복합된 새로운 링크마이신 에스(설파) 첨가제를 개발하여, 각종 폐염과 위축성 비염의 예방, 치료 및 증체, 사료효율을 개선시킴으로써, 양축가의 애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